

발제문

생태계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방안 : 로컬 및 글로벌 생태계 관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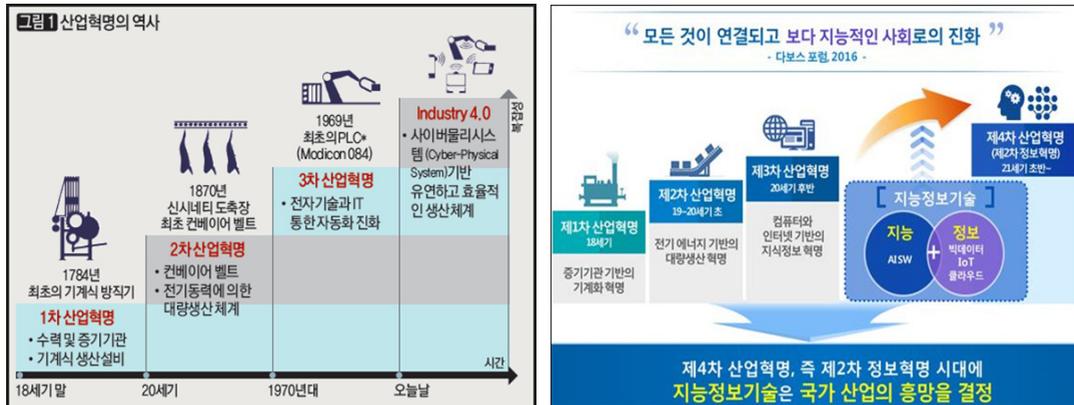
이동주

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

1. 중소기업중심의 경제로의 전환

□ 4차 산업혁명의 의미

- 산업혁명에서 핵심 요소는 산업전반에 걸쳐서 혁명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하는 기술발전
- 1차, 2차, 3차 산업혁명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시대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기술적 변화가 있었는데, 핵심 기술변화는 각각 농업, 기계와 전기, 컴퓨터
- 이러한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유도해내는 핵심 기술은 IoT와 IoE
- 다양한 기술변화가 복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과정에서도 생명체와 비생명체 간 융합을 통한 경계의 붕괴는 특별한 기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이러한 기술 변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



자료: 이삼열(2016.12), “미래거대한환경변화와 중소중견기업 정책방향”, 2016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.

□ 중소기업 경영환경의 변화

- 과거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개별기업간의 가격중심의 경쟁구조, 보호 무역주의, 업종의 개념 명확화 등과 같은 특성을 가졌다면
- 글로벌화, 4차산업시대 경영환경은 기업 네트워크간 경쟁, 지식기반 경제, 글로벌 무역자유화, 융합의 시대로 표현될 수 있음
-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경제성장을 주도할 핵심주체로 중소기업이 부상되고 있음

□ 지배적 중소기업의 변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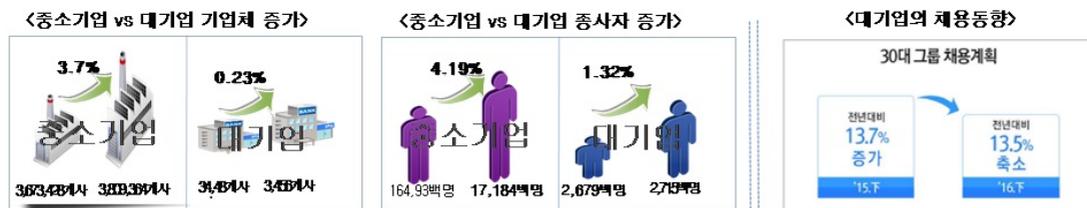
- 지배적 중소기업이란 그 시대 경제환경, 산업구조, 소비 트렌드에 적합한 경영전략과 경영자원을 갖추고 고성장을 이룬 중소기업
-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성장중소기업은 양산형 중소기업-소프트형 중소기업-개발지향형 중소기업-시장창조형 중소기업이란 네 가지 단계로 발전
- 양산형 중소기업 ∴, 경제발전 초기 단계 소비재나 중간재의 대량생산이 필요한 시기에 성장한 주도한 중소기업군. 특히 중화학공업화 시기 대기업의 계열형태로 성장

- 소프트형 중소기업 : 1990년대 들어 성숙화된 소비시장에서 수요의 다양화 개성화가 이루어짐. 섬유산업은 패션산업화되었으며, 기계공업도 제품의 다품종화·고부가가치화의 전략으로 전환. 이와 함께 기업경영에서도 기술, 디자인, 정보 등 소프트 경영자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짐.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도 다품종소량생산으로의 전환, 경영자원의 소프트화로 변화. 다품종소량생산이 대표적
- 개발지향형중소기업 : 다품종소량생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벗어나 고도화된 기술수요를 연구하는 개발력을 갖는 것이 성장중소기업의 조건이 됨. 대표적 기업군이 벤처기업, 이노비즈기업 등임
- 시장창조형 중소기업 : 기술적 측면에서의 대기업 자립화뿐 아니라 시장측면에서 대기업으로부터의 자립화를 요구하고 있으며, 기존시장의 성숙화에 의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고객의 잠재수요를 충족시켜 새로운 시장을 창조가 필요.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중소기업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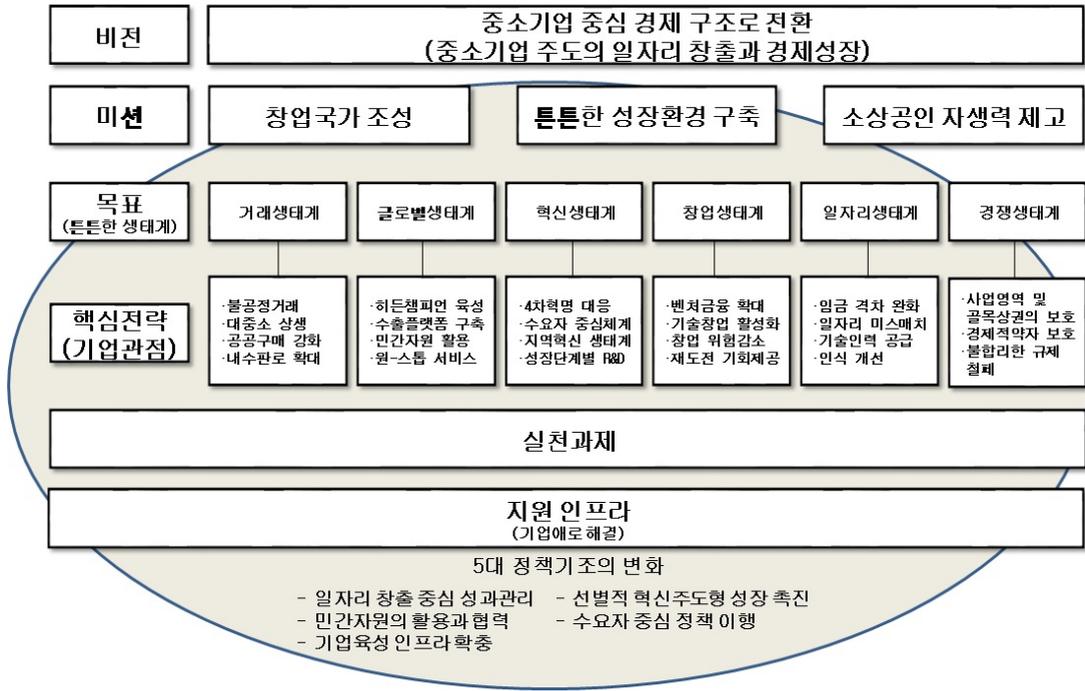
□ 중소기업의 위상 강화

- 한국경제는 2014년 이후, 인구절벽 · 주력산업 위기 · 양극화 등 기존 경제문제가 장기 교착상태에 빠지면서, 성장잠재력 감소와 사회갈등이 심화
-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교체 필요
- 현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중심의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



□ 중소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

-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은 양적으로 세계 일등수준이나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는 미흡
- 중소기업정책은 선택과 집중, 성장사다리, 맞춤형 정책 등 다양한 표현을 통해 나누어주기식, 살포식 지원의 중단을 표방
- 개별기업 지원의 틀에서 벗어나 기업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려는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정책 대상은 개별기업
- 기업생태학적 관점에서 기업은 창업-성장-성숙-구조조정-퇴출-재창업의 순환구조를 형성하기에 한국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청은 지금까지 기업의 창업이나 성장, 퇴출, 재창업 등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
-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함
- 기업생태계 관점에서 중소기업 정책목표의 재정립 필요한 시점
- 기업생태계를 기업의 활동단위 개념에서 접근하여 중소기업이 활동단위별로 다른 기업이나 외부 조직, 외부 자원 등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경영활동을 전개한다는 개념으로 이해
-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생태계는 활동단위별 생태계의 총합으로 구성되며, 기업생태계의 바람직한 선순환 구조가 정책의 목표
- 논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업생태계는 거래생태계, 글로벌생태계, 혁신생태계, 창업생태계, 일자리생태계, 경쟁생태계 등으로 구분이 가능
-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목표는 개별기업, 애로해결에서 벗어나 기업생태계의 하위 생태계들을 형성, 촉진, 발전시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음



2. 중소기업과 글로벌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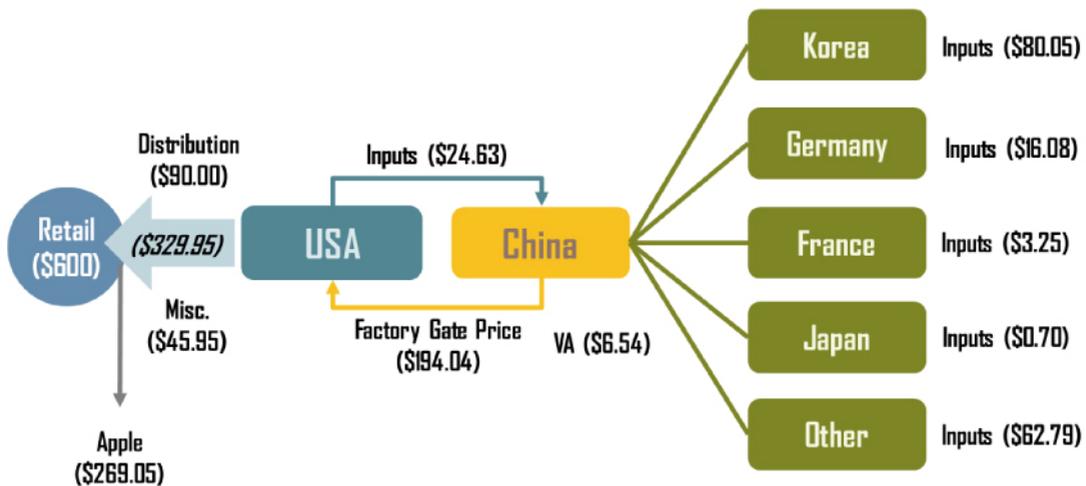
□ Mega FTA 출현

- 글로벌 분업 구조의 가속화, 스파게티볼 효과로 인한 FTA 활용률 하락 등으로 거대 경제권간, 다자간 FTA 논의 활성화
- 미국 주도 TPP, 중국 주도 RCEP, 미-EU FTA(TTIP), 日-EU EPA 등

□ 동아시아 지역통합

- 동아시아 통상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 대립 격화
- 한-중-일의 전통적 동아시아 분업 구조 와해 우려
- TPP, RCEP은 각각 중국과 미국을 상호 고립시키는 전략?
- 서로가 역내국간 누적 원산지 기준 적용 등 GVC 구축, 지재권, 경쟁 등

- 무역규범 확립 노력
-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대-중소 기업 관계 그리고 국제화
 - 과거에는 지역-중소기업(local SME)이 수출과 같은 국제적인 활동과 그 활동 과정에서의 학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외지사를 두고 영업하는 다국적기업의 형태로 성장해 나가는 개념으로 국제화를 인식
 - 즉, 국제화의 과정에서 다국적기업 혹은 대기업 등과 동종 시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다는 개념
 - 그러나 최근,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(혹은 다국적기업)들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기보다, 대기업의 가치사슬(즉, 대기업이 형성하고 있는 GVC)에 협력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(OECD, 2004)
- 글로벌 가치사슬과 부가가치의 배분
 - 미국내 시판가 600달러인 iPhone4의 글로벌 부가가치 분배 현황
 - 중국 기업들이 iPhone4 1대를 미국에 수출할 경우, 대당 194달러의 무역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부가가치의 생성은 6.54달러에 불과
 - 간접적으로 중국에 부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들은 Apple의 GVC에 간접적으로 참여함에도 불구하고, 1개 수출시 80달러의 부가가치를 생성



□ GVC의 지배(governance) 구조와 환태평양 GVC형 형성

- 모든 산업, 업종, 품목 등의 GVC는 각 각의 특징에 따라 해당 GVC를 지배하는 주체가 있을 수 있으며 소비자, 생산자, 중개업자 등이 특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
- 일반적으로 해당 GVC를 지배하는 주체는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이지만, 모든 GVC가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것은 아님
- 때로 GVC는 생산자와 구매자간에 형성된 시장적 관계(arm's length market relation), 상호보완적인 네트워크 관계, 비록 자본의 결합관계는 미약하지만 주 통솔자(dominating governor)가 지배하는 준계층(quasi-hierarchical) 관계 그리고 해외투자(FDI) 등으로 연계된 계층관계 등으로 구분되기도 함
- 이는 개별 중소기업들의 국제화(internationalization) 전략과 관련 중요한 시사성을 가짐
- 왜냐하면, GVC를 지배(govern)하는 주체가 해당 GVC에 편입하려는 중소기업의 가입 조건을 규정/규율하고 혹은 배제할 수 있기 때문
-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자신이 속한 GVC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당 GVC의 '게임의 법칙'을 깨달아야 함
- 환태평양 분업구조 속에서 한중일 삼국 주도의 GVC 형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를 고려
- 이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이 직면한 중국과 일본 기업 사이에 끼인 넛 크래커(nut-cracker) 상황을 돌파

2.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

□ 중소기업 지원사업

- 중앙부처(18개) : 14조 2,939억원, 288개 사업(융자 7.3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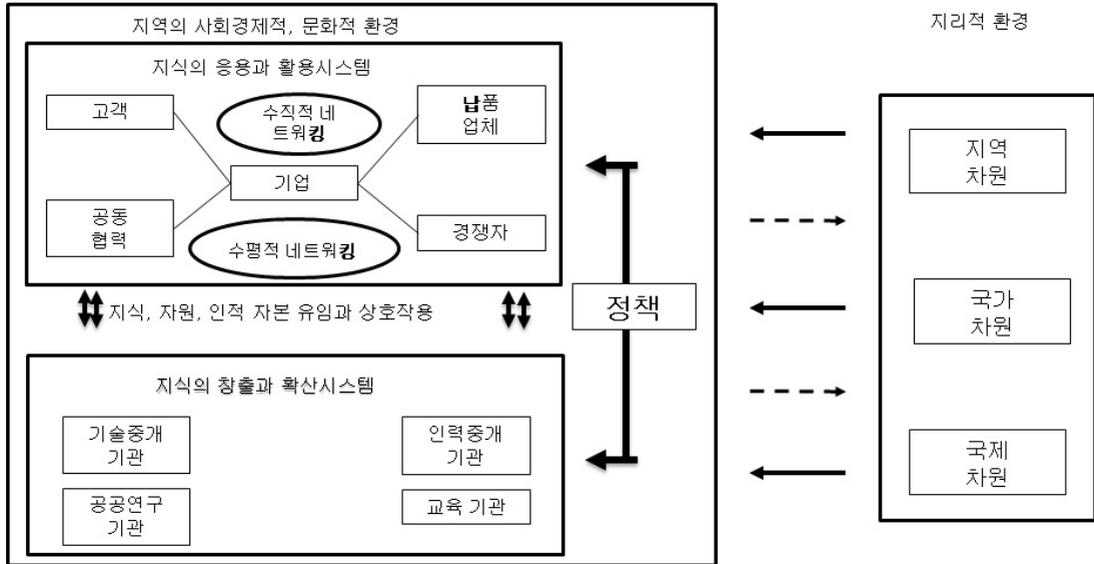
- 지 자 체(17개) : 2조 2,867억원, 1,059개 사업(용자, 1.2조)

| 구 분 | 2015 | | 2016 | | 2017 | | 증가율 (‘16-’17) |
|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예산 | 사업수 | 예산 | 사업수 | 예산 | 사업수 | |
| 전 체 | 152,788 | 1,287 | 164,670 | 1,284 | 165,806 | 1,347 | 0.7 |
| 중앙부처 | 129,987 | 246 | 141,374 | 265 | 142,939 | 288 | 1.1 |
| 지자체 | 22,801 | 1,041 | 23,295 | 1,019 | 22,867 | 1,059 | △1.8 |

- 지방정부의 기능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비중(사업수 기준)

| 경영 | 금융 | 기술 | 내수 | 동반 성장 | 수출 | 인력 | 창업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|-----|
| 26.3 | 16.1 | 16.3 | 12.7 | 0.2 | 17.6 | 6.3 | 4.4 |

-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역시 개별기업 지원형태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
- 생태계 구축자로서의 지방정부(플랫폼 형성자)
 - 지방정부의 중소기업정책도 기업생태계 형성과 육성 관점에서 출발
 - 기업생태계의 형성과 성장은 플랫폼의 특성과 기능, 적절한 운용에 좌우
 - 플랫폼의 도입, 이를 기반으로 한 참여자의유인과 선순환의 형성이 기업생태계의 형성과 성장을 초래



□ 지방의 창업 및 벤처 생태계(예시)

• 벤처생태계의 구성요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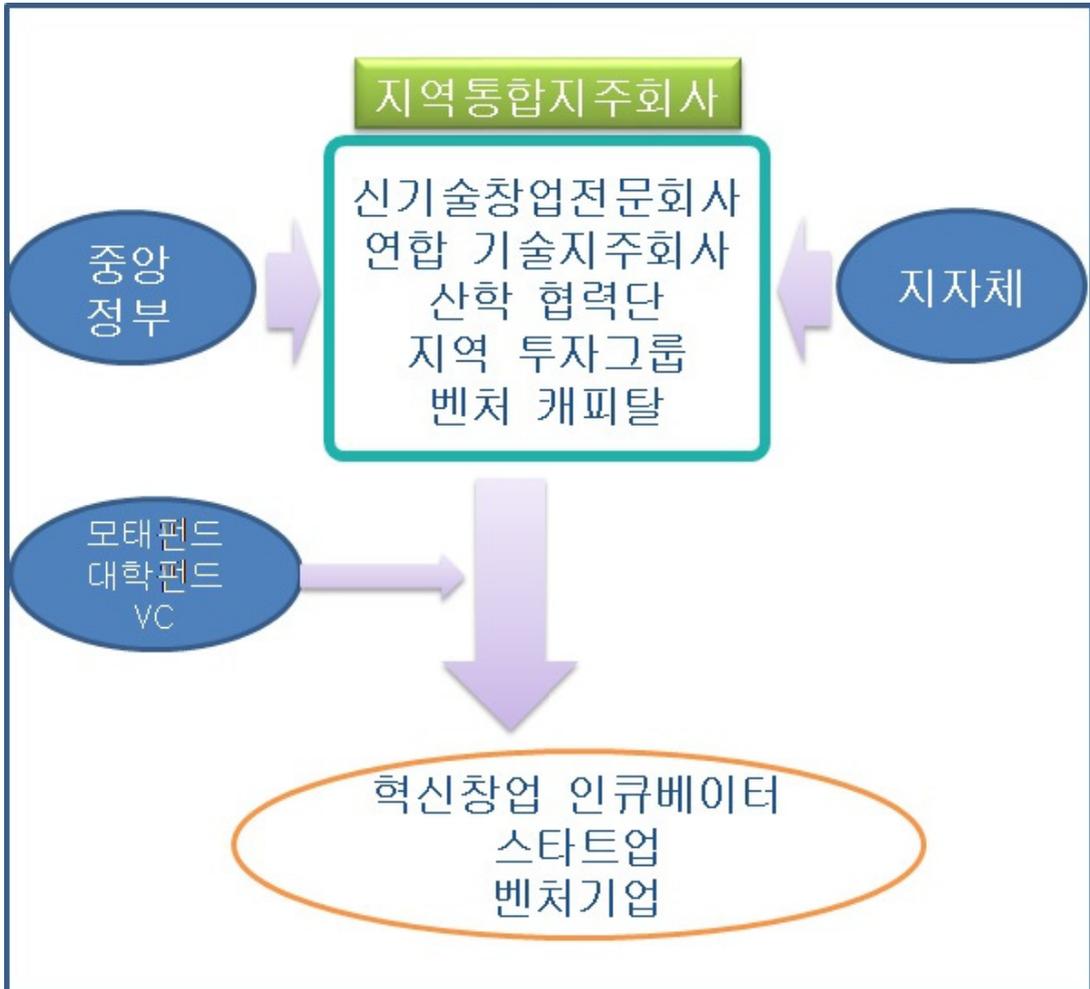
- ✓ 벤처 생태계에서 실체적 의미와 역할이 큰 구성요소로는 벤처기업,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주체인 벤처캐피탈,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양한 회수경로, 그리고 벤처 비즈니스의 본질적 속성인 혁신성에 기반한 고위험-고수익 창업을 원활히 뒷받침하는 제요소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 혁신창업 인프라 등을 들 수 있음
- ✓ 벤처기업, 벤처캐피탈, 회수시장은 벤처 생태계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으며, 혁신창업 인프라는 기반요소에 해당
- ✓ 이외에도 물리적·제도적 환경, 문화 등 제반 경제·사회·문화적 요소들을 포함하여 논의할 수 있음

• 지역별 신집적화 거버넌스

- ✓ 현재 개별 대학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혁신창업 플랫폼 구축정책을 광역화하고 개별 대학의 혁신창업 인프라를 지역 단위로 조직화
- ✓ 개별 대학을 대상으로 정부 부처들이 경합하는 구조가 아니라 개별 대학들을

대학 밖으로 유도하고 지역 차원에서 대학 혁신창업 인프라를 외부 벤처 생태계와 연계시켜 줌으로써 혁신창업의 성과를 구현

- ✓ 이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지자체와 다수 대학이 연합한 형태의 혁신창업 집적지 조성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투입되는 형태로 신집적지를 조성
- ✓ 지역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와 지역내 혁신자원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신집적지를 지정하되, 신집적지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.
- ✓ 중앙정부의 신집적지 내 정책자원 투입 대상은 지역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내 운영기구가 되며, 동 기구가 정책자원의 배분기능을 수행
- ✓ 지역내 운영주체는 통합 거버넌스가 선정한 통합 기술지주회사 또는 통합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되며 지역 내 관련 지원기구, 투자자, 선도 벤처기업 등이 운영에 참여
- ✓ 운영주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통합 신기술창업전문회사(또는 기술지주회사)의 업무영역 제한을 완화하여 집적지 개발기능을 부여
- ✓ 모태펀드는 지역 단위에서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한 사업 운영주체에게 선별적으로 집적화 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정부는 동 집적지의 통합 거버넌스에 금융, R&D, 인력 등 분야별 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제공
- ✓ 뉴욕 BTT처럼 신집적지에 대해서는 창업규제 프리존, 법인세 면세 등을 통해 양질의 혁신창업을 적극 유입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허용



□ 생태계의 글로벌라이제이션

-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벌라이제이션(Glocalization) 관점에서 생태계 구축과 운영이 필요
- 한중일의 수직적 분업구조를 수평적 분업구조로 전환
 - ✓ 구매자 탐색에서 협력자 탐색으로 지원 프로그램 전환 등
 - ✓ 일회적 수출 거래에서 장기지속적 거래관계의 형성에 기여
 - ✓ 협력 파트너를 찾아주는 공공서비스 필요

- 제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 생태계 구축 모색
 - ✓ 한중일을 테스트-베드로 인식하고 기업간 국제적 협력 모색(현지창업 인큐베이팅 등)
 - ✓ 창업이나 기업의 목표시장을 내수시장 중심에서 한중일→아시아→글로벌로 확대
 - ✓ 한중일 투자금융이 자유롭게 이동하여 생태계 형성에 주도적 역할 담당
 - ✓ 한국 지역 생태계가 중국, 일본 등 외국기업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
 - ✓ 규제 샌드박스, 규제 프리존도 함께 추진

-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하위 생태계의 수준을 점검하고 육성 분야 및 대상에 적합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level-up 전략 수립 필요